



'08년 9월 29일(월) 19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가스산업과 채희봉 과장, 윤영진 서기관(2110-5466)

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 추진

- '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연750만톤의 천연가스 수입
- 극동 석유·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원확보
- 총 사업규모 1,000억불 이상의 초대형 한러 경협프로젝트

□ 러시아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'08.9.29일 모스크바에서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,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(PNG: Pipeline Natural Gas)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음

○ 이를 위해 양국 정상 임석하에 국영가스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(Gazprom)은 양해각서*를 체결함

* 「러시아 연방의 대한민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 간의 양해각서」

□ 동 양해각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'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연 10BCM(Billion Cubic Meter, LNG 환산시 약 750만톤)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하기로 하고,

* 러시아는 '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'12년까지 사할린·하바롭스크·블라디보스톡간 가스배관을 건설하며, '15년에는 야쿠츠크 센터·하바롭스크간 가스배관을 완공할 계획

- 이를 위해 러측의 제안대로 블라디보스톡·북한·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하여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
- 이와 함께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공동으로 극동지역에서 석유화학단지 및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하여 공동운영 및 판매(수출 포함)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
 -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술을 활용하여 폴리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,
 - 가스공사가 보유한 LNG 분야의 축적된 경험 및 구매력을 활용하여, 가스프롬과 공동으로 블라디보스톡에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하고 아태지역으로의 LNG 수출을 추진할 예정임
 - * 가스공사는 연 1백만톤의 폴리에틸렌, 0.5백만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공장과 500만톤 규모의 LNG 액화플랜트 건설 방안을 가스프롬에 제안하고 추후 협의할 예정
- 금번 양사가 합의한 가스분야의 협력사업은 향후 30년간 천연가스 구매액 900억불, 석유화학단지 건설비 90억불, 북한을 경유하는 배관건설비(PNG 추진시) 30억불 등 총 사업규모 1,000억불 이상의 초대형 한·러 경제협력 프로젝트로서

-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7개월여간 양국 정부 및 국영회사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룩한 자원 외교의 최대 성과이며, 해외자원확보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하는 전형적인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례임
 - * '08.2월 이후 양국 정부간 협의 3회, 가스공사·가즈프롬간 협의 6회 등 총 9회의 협의회가 진행되었음

-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(세계 비중 26.3%)·수출국인 러시아는 총 280억불을 투입하여 낙후된 극동·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「극동·동시베리아 개발계획*」을 수립·시행중이며,
 - * 「2008~13년 극동·자바이칼 경제·사회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」

- 그 일환으로 동부지역 가스전을 개발하여,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가스배관(UGSS:Unified Gas Supply System)으로 연결하고, 기존 유럽 일변도의 천연가스 수출체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는 「동부가스계획(Eastern Gas Program)」을 '07.9월 발표하였음
 - * 동부 UGSS : 크라스너야르스크, 이르쿠츠크(코빅타 가스전), 야쿠츠크(차얀다 가스전), 사할린 등 4개 가스전을 통합 연결

-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은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통해 극동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러시아의 이해와 천연가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우리의 이해가 상호일치하여 성사되었음
 - * 우리나라는 '90년대 초반 사하공화국 차얀다 가스전, '00년대 초반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에서 PNG 도입을 추진하였으나, 민간주도로 추진되며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,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된 바 있음

- 향후 약 2년에 걸쳐 북한을 통과하는 한·러간 배관노선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동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,
 - '10년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'11~'14년간 블라디보스톡·북한·우리나라를 연결하는 가스 배관을 건설하여 '15년부터 러시아 PNG가 도입될 예정임
 -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은 한국, 러시아 및 북한의 자재, 기술, 인력 및 자본을 상호이용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

- PNG 도입방안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동일한 규모의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, LNG(Liquefied Natural Gas) 또는 CNG(Compressed Natural Gas)로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함
 - 석유화학단지 및 LNG 액화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

-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가스 도입으로, 우리나라는 연간 수요의 약 20%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신규로 확보하여 공급자 중심의 국제 LNG 시장(Seller's Market)에서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고,

* 연간 10BCM의 PNG 규모

- ① '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예상소비량(3,350만톤)의 약 20% 차지
- ② '07년 가정용 소비량 780만톤(1,250만 가구)에 상당하는 물량
- ③ 축구장 크기 2배 규모의 LNG 선박 125척(1척당 약 6만톤 운송)이 운송가능한 물량

- 기존 중동·동남아 위주이던 천연가스 도입선을 러시아까지 **다변화함**으로써 **공급의 안정성**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
 - * 주요 공급국 : 카타르, 오만, 말련, 인니 등 4개국 이 약 93% 공급
 - 또한 PNG로 도입할 경우, **LNG 위주의 도입방식에서 탈피**하여 **공급방식을 이원화**하고, 근거리에서는 PNG 가격이 보다 저렴한 점을 감안시 **도입가격 인하**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
 - * 일반적으로 3,000km 이하의 근거리에서는 PNG가 LNG보다 공급비용이 저렴
 - * 유럽으로 공급하는 PNG 가격이 우리나라 LNG 가격보다 저렴
 - * '07년, (유럽공급 PNG) 약410\$/톤, (우리나라 LNG) 499\$/톤
 - 또한 우리나라 가스배관이 러시아 **UGSS**와 연결됨으로써 **해외 에너지망과 최초로 연계**하여 향후 **동시베리아 자원 확보 경쟁**에서 **우위를 점**하게 되었고, 러시아가 중점 추진 중인 **극동·동시베리아 개발사업**을 **한국 기업이 선점**할 수 있는 효과도 가능
- 향후 한·러·북의 **기술·자본·인력** 등을 폭넓게 활용하여 북한을 경유하는 **천연가스 배관**을 건설한다면 이는 남북경협 **의 새로운 모멘텀**으로 작용하고
- 한국은 **에너지자원을**, 러시아는 **안정된 수출시장을**, 북한은 **배관통과료를 확보**하는 **상호 Win-Win 관계**구축을 통해 **'3국간 에너지 공동협력체제'** 실현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
 - * 러시아·우크라이나간 배관통과요율 적용시 북한은 연 1억불 이상의 배관통과료 수입 확보 가능

- 한편 극동지역에 건설예정인 석유화학단지과 LNG 액화 플랜트 사업은 양국이 보유한 원료가스, 기술 및 자금력, 해외 마케팅 능력 등이 상호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며,
- 이를 위해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이 공동으로 출자한 합작회사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,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국내 석유화학 또는 건설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임